

형식적인 안전의 탈피! 새로운 안전의 접목!

『KT 동수원지사』



▲ 김대규 지사장

어느덧 동장군은 온데간데 없고 따뜻한 햇살과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인사하는 5월이다. 우리내 현장에서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펴고 안전의 내실화를 위해 보다 정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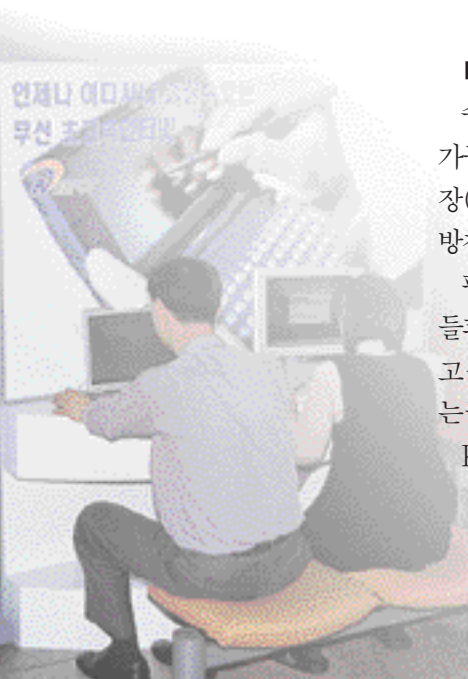
역사깊은 문화유산과 맑고 깨끗한 자연을 자랑하는 경기도 수원시의 「KT 동수원지사」에서 안전의 참모습을 확인하였다.

■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안전은 제2의 생산”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전역, 화성시 태안읍 일부로 633km²의 면적에서 약 33만 가구, 88만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KT 동수원지사는 지사장(김대규)을 비롯하여 4개 지점장 등 350여명의 직원이 안전을 최우선하는 경영 방침으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평소 모든 업무에 Communication이 우선임을 강조하는 김대규 지사장은 직원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는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이 열리고 동질감이 형성된다. 상호간에 형성된 신뢰라는 텃밭에서 사랑과 웃음, 행복이라는 꽃과 열매를 피울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자 함이다.

KT 동수원지사는 이러한 인간관계가 안전의 기본임을 인식하고 “안전은 제2의



생산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사장 등 관리감독자가 솔선 수범하고 있다. 특히 KT처럼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의 사고후처리비용은 그 액수를 헤아릴 수 없을만큼 엄청나다. 이러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안전이고 제2의 생산인 것이다.

■ Brother System 으로 안전의 백업기 능 확보

KT는 업무 특성상 통신서비스를 지원하는 교환기시설 등 중요한 통신장비 및 기기가 사옥내 설치되어 무엇보다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요구된다.

특히 안전담당자의 업무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백업기능을 강조하여 Brother System을 구축하였다.

Brother System은 KT동수원지사 및 지점의 사옥을 하나의 안전관리업무로 통합하여 지점을 A와 B로 나누어 A안전담당자의 교육, 휴가, 출장 등 유사시 비워진 자리를 B의 안전담당자가 점검·확인 등 관리해 줌으로써 비상시 대처할 수 있는 백업기능의 확보를 위한 최적의 System을 말한



다.

이 시스템으로 직원들 모두 형제가되어 서로 배우고 가르침으로써 개인의 기술 향상은 물론 자체적인 처리로 비용절감의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KT 동수원지사의 알 찬 야심작 「사옥·안 전체험학습장」

안전은 어릴때부터 몸소느끼고 스스로 터득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자율안전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자율적이고 실질적인 안전을 강조하는 KT동수원지사의 야심작이 있다.

형식적인 안전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및 교육생 스스로 위험을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지난 해 10월부터 「사옥·안전체험학습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사옥내 화재, 감전, 폭발, 협착, 추락, 환경, 보건 등 15개 코스로 기계설비실 등의 시설견학 및 실습으로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는 「사옥·안전체험학

습장」은 장내에 설치된 안전시설 및 장비, 기구 등을 업체로부터 도움받아 월 1~2회 각 학교나 사업장에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모두가 하나의 사회적 구성원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나와 지역의 안전, 나아가 우리나라의 안전을 발전시키는데 다 같이 참여하는 정보 공유의 안전나눔터가 되고자 한다.

안전은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지킨다는 생각, 그리고 우리모두 한마음 한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진지한 배움의 기회를 가져 안전 사고 예방의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김대규 지사장은 말한다.

체험학습장이용문의 :031) 217-4017
강래진 사옥안전팀

■ 안전선진화를 위한

「사옥·안전지원기술센터」

MF체제 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및 실업정책의 일환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근로자 의식이 약화된 현 상황에서 나만 아는 안전이 아닌 모두가 알고 실천하는 안전으로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KT동수원지사는 지사장 직속의 「사옥·안전




지원기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사내는 물론 사업장 형편상 안전관리자의 법적 선임만 가능한 타 사업장들을 위하여 안전실무요령, 안전활동 추진방법 등 안전선진화에 필요한 내용 등을 전문적이며 실무경력이 풍부한 직원을 전담

팀장으로 지정하여 자율적인 안전문화 정착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작업시작 전 TBM, 유해위험작업 실명제, 안전경영평가 실시 등 적극적인 안전활동 전개로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저비용 고효율화, 동종재해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안전을 기본으로 ‘고객우선주의 경영’을 실천하면서 “IT Leader, KT” World-Class Company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김대규 지사와 직원들의 모습에서 우리나라 안전의 미래가 밝음을 볼 수 있었다. 

〈성호연 기자〉